

기형도 시 「안개」의 인지 의미 고찰

이승철(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안개'의 의인화 전략과 의미 |
| 2. 지시적 불투명성과 '안개'의 영역 | 4. 결론 |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기형도의 「안개」를 인지시학 방법론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시 「안개」는 기형도의 등단작으로 '죽음'으로 점철되는 기형도의 비극적 시세계를 형성하는데 시초가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는 기형도의 다른 시들에서도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부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시이다. 그동안 「안개」에 대한 분석은 '안개'의 이미지 파악, 기형도의 생애사적 측면과 관련한 시공간의 이해,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몇몇 시어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예를 들어 이 시는 시야를 방해하는 '안개'의 속성이 '軍團, 銃身' 등의 시어와 결합하거나, 또는 여직공이 겁탈당하고 취객이 동사하는 사건들과 결부되어 구축된 '차단', '벽'의 이미지에 대한 파악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안개」 시 전체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시 「안개」는 기형도 시의 특징인 숨어 있는 화자, 불명확한 지시 대상을 가

리키는 지시어, 시공간에 대한 모호한 지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체적 특질은 기형도 시에 나타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이 글은 「안개」 시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시어들이 「안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안개」 시의 불명확한 시어와 어휘들이 「안개」와 결합하여 어떤 의미를 구축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안개」 시에서 나타나는 화자, 대상, 장소, 시간 등의 지시적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지시학 방법론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지시학의 직시 이동 이론과 개념 은유를 방법론적 토대로 하여, 독자차원에서 시 「안개」의 의미가 도출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형도 시에 대한 연구는 시적 세계관을 ‘죽음’과 관련지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요절한 시인이라는 전기적 사실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의 시에 함의된 ‘죽음’ 이미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소외’ 의식에 대한 논의 또한 ‘죽음’과 관련한 비극적 세계관에 이르는 도정으로 볼 수 있다.

기형도 시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죽음’의 요소를 추출하여 시세계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주제론적으로 접근한 논의¹⁾에서는 그의 시에 표출된 ‘어둠’과 ‘소외’를 ‘죽음’과 관련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극적이고 염세적인 시세계를 도출해낸다.

이미지, 상징 등을 분석한 논의²⁾에서도 모호하고 환상적인 이미지와 상징

-
- 1) 김 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박철화, 「집 없는 자의 길 찾기 혹은 죽음: 기형도론」, 『문학과 사회』, 1989. 8.
 김경복, 「유배된 자의 존재 시학」, 『문학과 비평』, 1991. 3.
 정효주, 「차가운 죽음의 상상력」, 『현대시학』, 1992. 2.
 남진우, 「숲으로 된 푸른 성벽: 기형도 미완의 매혹」, 『숲으로 된 성벽』, 문학동네, 1999.
 황효일, 「거리의 시인: 기형도에 대하여」, 『북악논총』 18집, 국민대학교대학원, 2001. 2, 33-46쪽.
 최창현, 「한국현대시 존재담구의 변모양상」, 『어문논집』 31집, 중앙어문학회, 2003. 12.
 장석주, 「기형도 혹은 길 위에서의 증언거림」, 박해연 외 편,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오윤경,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과 몸」, 『한국문예비평연구』 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4, 181-204쪽.
- 2) 조병춘, 「기형도 시 연구」, 『새국어교육』 65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3, 94-409쪽.
 임경희, 「상자 속에 채집된 아이러니적 존재-기형도론」, 이화현대시연구회, 『행복한 시인의 사회』, 소명출판, 2004.
 임세진, 「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외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 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12, 227-257쪽.

들을 ‘죽음’의 이미지로 충칭한다. 즉 가난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기형도의 개인 체험이 쉽게 사라지는 것들의 이미지로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시각이나 방법론으로 기형도 시를 접근하려는 경향³⁾도 있다. 즉 비교문학적 차원, 상호텍스트성 차원 등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형도 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시에 구현된 사회 현실성에 대한 측면이다. 이 지점에서 기형도 시를 비판하는 측은 시가 1980년대의 사회 현실을 방목하고 구체적 사건이 없는 모호함의 이미지(안개 이미지)로 단순히 시대를 풍경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기형도 시의 사회 반영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당시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 신군부의 통제와 탄압 등 80년대에 나타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인사적 체험과 정서를 통해 ‘죽음’과 ‘소외’ 의식 등으로 의미를 형상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양측의 평가는 기형도 시가 ‘사회 비판성’과 ‘모호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양가적 특성의 접점을 찾아내고 그 접점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기형도의 「안개」 시를 읽을 것이다. 즉 기형도의 「안개」에서 ‘사회 비판성’과 ‘모호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양립하여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의 방법론인 인지시학⁴⁾은 은유를 하나의 개념으로 인지한다. 즉 인지 주체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시에서 은유 구조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 은

-
- 3) 박나영, 「빈 집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차대식, 「기형도 시의 지평 연구: 수용적 차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구지원, 「기형도 시 연구: 보들레르 시와의 비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송희, 「인지시학적 시각으로 본 기형도 시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4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4, 115-135쪽.
권혁웅, 「기형도 시의 주체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4, 65-87쪽.
- 4) 우리나라에서 인지시학에 대한 소개와 본격적 연구는 양병호(전북대)에 의해서이다. 그는 G. Lakoff · M. Turner의 저서를 번역한 『시와 인지』(한국문화사, 1996.)를 통해 인지시학을 소개했으며, 이론을 시 분석에 적용한 논문을 묶은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태학사, 2005.)를 펴냈다. 최근에는 인지시학에 관련한 번역서인 『인지시학의 실제비평』(한국문화사, 2014.) 등을 발간했다. 그의 저서와 번역서는 이후 인지시학의 실제 비평의 토대가 되었다.

유 구조를 분석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는 개념 은유(conceptual metaphor)에 의해서이다. 개념 은유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대상인 은유에 대한 개념이다. 인지시학에서는 광의의 은유 개념을 사용한다. 예컨대, 일상 어이든지, 문학적 언어이든지 언어는 실제 대상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는 관점을 지닌다. 따라서 인지시학에서는 수사법으로서의 은유에 한정하여 개념 은유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인지주체의 인지 개념은 모두 개념 은유의 대상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념 은유를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인지주체의 인지 태도가 반영된 경우, 이를 모두 개념 은유의 설정 대상으로 한다.

개념 은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은유적 표현의 기본이 되는 은유를 말한다. 예컨대, '그녀의 청춘이 만개했다'와 같은 표현은 [인간은 식물이 다]라는 기저의 개념에서 '식물'을 근원 영역(source domain)에, '인간'을 목표 영역(target domain)에 두고 이 둘 사이의 유사성을 사상(mapping)한 것이다. 이 개념 은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을 '식물'의 속성으로 치환하여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생성해내고 사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시의 구조와 수사적 표현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개념 은유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시 『안개』의 이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인지시학의 직시 이동 이론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직시 이동 이론(deictic shift theory, DST)⁶⁾은 독자가 텍스트 내에서 화자나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대상(사물)을 바라봄으로써 직시적 표현을 해결하는 것을 일컫는다. 텍스트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직시 영역(deictic field)으로 구성된다. 동일한 직시 중심을 나타내는 직시 표현을 범주화하여 직시 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직시 이동 이론은

5) 시의 은유를 말할 때, 시인의 독창적인 은유를 시적 은유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관습적인 은유의 경우 죽은 은유라 칭하며 은유로서 가치를 논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죽은 은유의 경우에도 인지주체의 경험과 인지 사이에 발생한 시적 표현이다. 그리고 이 관습적인 은유는 우리의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와 사용 빈도수에 따라 관습화된 표현이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확장된 측면에서 시 언어의 의미와 지식 사이에 접점을 개념 은유로 살펴보고자 한다.

6) 직시 이동 이론에 대한 설명과 시에 이를 실제 적용하는 문제는 피터 스톡웰(Peter Stokwell)의 *Miltonic texture and the feeling of reading*(edited by Elena Semino & Jonathan Culpeper, Cognitive Styl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2.)과 번역서인 『인지시학개론』(Peter Stokwell, 이정화·서소아 역, 한국문화사, 2009.)을 참조할 것.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직시 이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지각적 이동(perceptual shift)은 텍스트 내에서 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정관사와 한정 지시어, ‘생각하다’와 같은 정신 상태를 포함한다. 공간적 이동(spatial shift)은 장소를 나타내는 공간 부사, 위치어(‘셋강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시대명사(‘이것, 저것’), 이동 동사와 관계한다. 시간적 이동(temporal shift)은 시간과 관계한 표현으로 시간 부사와 위치어(‘나의 유년 시절에’, ‘3주 후에’) 그리고 동사 형태의 시제를 포함한다.

관계적 이동(relational shift)은 작가, 화자, 등장인물, 독자의 관점과 상대적 상황을 보호화한 표현, 호칭, 평가 형용사와 평가 부사를 포함한다. 텍스트적 이동(textual shift)은 제목과 단락 바꾸기, 다른 텍스트에 대한 공지시, 텍스트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한 지시 등을 포함한다. 구성적 이동(compositional shift)은 적절한 능력을 겸비한 독자가 텍스트에서 총칭적 유형, 문체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직시 이동 이론은 시인이 텍스트 내에서 직시 중심을 어떻게 만들어내며, 이것을 인지 과정을 통해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읽기의 과정에서 직시 중심을 어떻게 이동하고 사용하는지를 고찰한다.⁷⁾ 독자는 직시 이동을 통해 직시 표현을 이해한다. 직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동에는 밀기(push)⁸⁾와 튀어 나오기(pop)⁹⁾를 수반한다. 이 글은 직시 이동 이론을 적용하여 독자측면에서 이 시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작업은 텍스트의 맥락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시 읽기로서 그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이 글에 앞서 이송희의 논문 또한 기형도 시를 인지시학으로 분석하였다.¹⁰⁾ 이 논문은 기형도의 시가 과거에 대한 부정의식, 현실에서의 소외의식, 존재에 대한 실존의식을 표출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부정의식, 소외의식,

7) Peter Stokwell, 이정화·서소아 역, 위의 책, 92쪽.

8) 실제 독자가 텍스트 내 함축 독자나 이야기 청자의 지각 속으로 이동하는 것, 또는 이야기 화자나 등장인물의 지각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독자를 직시 영역 안으로 밀어 넣는 직시 이동을 수반한다.(위의 책, 93쪽.)

9) 실제 독자가 직시 중심을 독자의 실제 삶의 차원으로 이동함으로써 직시 영역 밖으로 갑자기 튀어 나올 수 있다. 텍스트 내에서 화자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나타나거나, 화자가 의견이나 외적인 논평을 이야기 내 아무 지점이나 불쑥 끼워 넣는다면 독자는 다른 영역으로 튀어 나오기 할 수 있다.(같은 책.)

10) 이송희, 앞의 논문.

실존의식을 기형도의 시가 달성하려는 목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유사한 이미지들을 근원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유를 순환적, 대비적, 복합적 구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화자의 개인 체험이 시적 은유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와 소통하는 기형도 시만의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즉, 이 논문은 시적 화자의 세계 경험이 어떻게 시에서 내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념 은유를 활용하고 있다.

이송희의 논문에서도 「안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안개」를 능동적과 수동적 정보의 대비로 보았다. 양 상황의 대비는 안개가 끼었을 때의 풍경과 안개가 걷혔을 때의 풍경의 대비, 그리고 ‘걸어가야 하는 존재’와 ‘남아 있어야 하는 존재’의 대비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중심으로 밀려나 은폐의 삶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¹¹⁾ 이 시의 지향 은유가 소외된 존재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안개」 시의 공간을 대비적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지향 은유를 통해 소외 의식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 대한 지향 은유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으며, 단순히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하강에서 상승의 공간으로 나아가려는 일반적인 속성을 통해 화자의 지향점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이 글의 전개와 일부분 유사성을 띠 수 있다. 그러나 이송희의 논의가 기형도의 시세계라는 큰 틀에서 「안개」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면, 이 글은 「안개」를 개별 텍스트로 설정하고 독자측면에서 시의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한편, 이송희의 논문에서는 인지주체를 모호하게 설정한 반면, 이 글에서는 인지주체를 독자로 설정하고, 시에 나타난 직시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독자측면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¹²⁾ 인지시학은 문학 작품의 인지 구조를 조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지시학은 특별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문학 작품이 창조되고 이해되는 인지 과정을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둔다.¹³⁾

11) 위의 논문, 124쪽.

12) 독자는 화자, 시인과 같은 인지주체의 발화내용, 수사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인지주체에 대한 설정은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독자측면에서 시의 이해에 도달하려는 정보의 인지적 수용 과정이 될 것이다.

2. 지시적 불투명성과 ‘안개’의 영역

기형도는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안개』로 등단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전까지 독특한 시적 영역을 구축하면서 시작 활동을 이어갔다. 1980년대의 문학 지형은 급속한 산업화와 신군부의 정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기형도는 개인사적인 체험의 시를 통해 당대 사회의 이미지를 생성해낸 시인이다. 『안개』는 불명확하고 부조리한 사회의 이미지 구축을 향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직시 이동 이론을 적용하여 『안개』를 분석할 것이다.

1

아침 저녁으로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2

이 읍에 처음 와 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잇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軍團은 셋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 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13) 인지시학은 작가와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기 위하여 실행하는 개념의 투사와 사상의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인지시학은 해석의 결과 보다는 해석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 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죽 위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낮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聖域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셋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 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회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진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醉客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걸을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걷히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銃身을 겨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협약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읊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안개」 전문

이 시는 독자를 안개가 낀 ‘셋강’이라는 공간적 직시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첫 연에서 감춰진 화자와 그가 3인칭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직시 이동이 발생한다. 또한 직시 이동을 이끌고 제한하는 것은 공간적 배치이다. 마지막 연에서 ‘셋강’이라는 공간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은 독자의 직시 이동을 이끈다.

「안개」는 7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총 3부로 나뉜다. 이 시에서 3부로 나뉘는 것은 연극에서 총 세 개의 막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과 유사하다. 1부가 끝나고 2부가 새롭게 시작되는 휴지의 구성은 독자를 텍스트적 직시 이동으로 이끈다. 이 시의 처음은 ‘셋강’이라는 공간에 끼는 자연 현상인 ‘안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2부에서는 공간이 읍으로 확장되며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공장의 노동 인력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산업화 사회 혹은 자본주의 사회로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의 구성은 독자를 텍스트의 안과 밖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다양한 읽기를 가능하게 만든다.

「안개」 시의 특이점은 ‘때까지’, ‘때문이다’의 빈도수가 현저히 많다는 것이다. ‘때까지’와 ‘때문이다’는 2, 3, 4, 6연에서 쓰였으며, 5연에서는 유사한 의미인 ‘탓’으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이 시의 구조가 결과와 원인의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이 시의 화자가 감춰진 ‘나’라는 점이다. 감춰진 화자인 ‘나’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대상을 묘사한다. 그로 인해 이 시는 관찰자인 ‘나’에 대한 결정을 독자에게 넘기고 있다. 「안개」에서 ‘軍團’, ‘聖域’, ‘검탈당했다’, ‘얼어 죽었다’, ‘공장의 검은 굴뚝들’, ‘젖은 銃身’, ‘폐수의 고장’ 등의 시어는 독자로 하여금 경계 작업(edgework)의 혼란을 유발시킨다. 이

시어들에서 텍스트적 직시 이동이 발생하여, 독자는 텍스트 내에서 1980년대의 사회로 튀어나온다.

인용시에서 직시 이동은 지각적, 시간적, 공간적, 관계적, 텍스트적이다. 1연과 2연에서는 ‘이 읍’, ‘그 긴 방죽’, ‘저 홀로’에 있는 지시 대명사를 통해 독자를 지각적 직시로 밀어 넣는다. 그런데 이 두 연에서 ‘이 읍’과 ‘그 긴 방죽’이 지시하는 ‘셋강’에 대한 묘사는 자연의 한 현상일 뿐이므로 독자는 축어적 내용만을 읽어낸다. 2연에서 주목할 점은 3행과 7행의 ‘때까지’로 끝나는 구문이다. 앞의 내용에 대한 답을 뒤에 내놓는 통사 구조를 통해 독자는 ‘안개의 강’과 ‘긴 방죽’에 대한 지시보다는 그곳을 거쳐야 하고, 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더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이유 자체는 이후 연에서 나타나는 ‘안개’, ‘셋강’, ‘읍’에 대한 묘사의 감각적 체험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2연은 독자를 ‘생각’의 지각 영역에 머물게 한다. 2연 1, 2행의 “이 읍에 처음 와 본 사람은…… 거쳐야 한다”는 가정법의 형태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이 두 행에서는 ‘와 본’, ‘거쳐야 한다’, ‘서 있어야 한다’와 같은 움직임 지시하는 서술어가 있지만, 첫 행의 “이 읍에 처음 와 본 사람은”이 가정법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 서술어들은 단지 독자의 머릿속에서만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1, 2연에서 독자는 “안개의 빈 구멍 속에/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셋강’에 서 있는 상상을 하는 지각적 직시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3연에서 ‘여공들, 아이들, 사람들, 그들’과 같은 인칭과 대명사는 독자를 지각적 직시로 이동시킨다. 시에서 ‘여공들, 아이들, 사람들’에 대한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어들은 복수의 형태로 지시된다. 이와 같은 집단적 호명은 대상을 감추는 ‘안개’의 속성과 관련하여 대상의 익명성을 함의한다. 이것은 대상의 개별성보다는 획일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행동 주체인 ‘여공들, 아이들, 사람들’은 동작을 지시하는 서술어와 호응하는데 각각 ‘여공들-깔깔거리고 지나가고’, ‘아이들-새어 나오고’, ‘사람들-뚫고 다닌다’와 상호 관련 맺는다. 독자는 처소와 시간의 의미를 지닌 ‘안개’를 문장 구조 속에 포함시켜 주체들과 동작 서술어의 호응관계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깔깔거리고 지나가고’, ‘새어 나오고’, ‘뚫고 다닌다’의 동작 서술어는 ‘안개’에 기인한 주체의 행동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자는 주체들의 행동이 ‘안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4연은 독자를 ‘안개’의 영역으로 이끈다. 4연의 1~4행은 ‘안개가 끼지 않은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5~9행은 ‘안개가 끼는 저녁’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독자는 안개의 유무에 따른 대비를 통해 공간(공간 거주인)과 ‘안개’의 유착성, 긴밀도를 인지하게 된다. 화자는 시적 공간을 ‘이곳’이라고 지시하면서 공간과의 근접성을 드러내는데, 이와 같은 화자의 위치와 시점은 독자에게 투사되어 ‘안개의 聖域’ 안에서 공간과 등장인물들을 지켜보게 한다. 3연과 4연에서는 ‘안개’의 영역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인 ‘안개의 軍團’과 ‘안개의 聖域’에 주목하게 된다. 이 두 표현을 통해 독자는 ‘이곳’으로 지시된 현 공간에서 ‘안개’의 공간 지배력과 불가침성을 인지한다.

5연에서 화자는 ‘안개의 聖域’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5연에서 언급된 사건은 대명사와 일반화한 지시 대상의 호칭을 통해 이해된다. 독자는 지각적 직시의 중심에서 ‘몇 가지 사건’이 겹탈당한 여직공과 동사한 취객에 관한 것임을 이해한다. 그리고 3연의 ‘그녀’는 ‘여직공 하나’이며, 4행의 ‘그것’은 앞 행의 “그녀의 입이 막히자”와 조응함을 알게 된다. 또한 독자는 6행의 ‘그것’을 전방조응(anaphoric)¹⁴⁾하여 ‘醉客 하나’와 조응시키며, 한편으로 독자는 ‘그것’을 후방조응(cataphoric)¹⁵⁾하여 ‘쓰레기 더미’로 이해한다.

위에서 언급한 지시어들을 살펴보면, 화자는 사건 피해자의 호칭을 일반명사와 수량을 결합하여 말한다. 이것은 시에서 ‘여직공 하나’와 ‘醉客 하나’로 나타난다. ‘여직공 하나’는 다시 ‘그녀’로 지시되며, ‘醉客 하나’는 ‘그것’에서 ‘쓰레기 더미’로 지시된다. 또한 사건은 ‘그것’으로 대명사화된다. 인간인 ‘여직공’과 ‘醉客’은 수량화되어 ‘하나’라고 불린다. 또한 ‘여직공’은 ‘그녀’로, ‘醉客’은 ‘그것’으로 변환되며, 마지막으로 ‘醉客 하나’는 다시 ‘쓰레기 더미’인 사물로 불린다. 독자는 ‘안개의 聖域’에서 발생한 사건의 대상을 사물화하는 화자의 인지 태도를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독자는 ‘안개의 聖域’에 사는 누구나 ‘여직공 하나’와 ‘醉客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공간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임을 예측한다. 이로 인해 독자는 ‘그것’으로 지시된 두 개의 사건을 개인

14) 인지 과학과 인지 언어학을 바탕으로 조응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대명사에 대한 선행사가 대명사 앞에 있는 경우 전방조응을 하여 대명사의 의미를 파악한다.

15) 후방조응은 대명사가 앞에 나오고 선행사가 뒤에 오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In his free time, my son plays game.’에서 ‘his’는 후방조응하여 ‘my son’임을 파악하게 된다.

적이고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익명성을 띠며 보편화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6연 1행의 “안개가 걷히고”는 독자에게 ‘안개’ 영역의 실체가 드러나는 영상을 사상하도록 한다. 즉 안개가 걷힌 공간은 ‘공장’과 ‘폐수의 고장’으로 드러나는데, 독자는 이것을 ‘안개’ 영역의 감춰진 실체로 인지한다. 독자는 2행의 “공장의 젖은 굴뚝”을 “젖은 銃身”으로, “이 폐수의 고장”을 ‘샷강, 긴 방죽, 안개의 聖域’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서술어인 4행의 ‘떠나갔지만’, 5행의 ‘밀려났다’를 통해서 공장과 떠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음을 이해한다. 6연의 마지막 행은 앞 행인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에 대한 원인이 되는데, 독자는 ‘상처 입은 몇몇 사내’가 ‘돌아온 사내’가 되지 않는 이유를 3행의 “젖은 銃身을 겨누다”에서 ‘공장’을 가해자로 ‘사내’를 피해자로 파악하여 찾아낸다. 즉, 독자는 ‘공장’과 ‘사내’와의 관계에서 ‘공장’이 ‘사내’를 향해 ‘銃身’을 겨누었으며, ‘銃身’을 겨누는 ‘공장’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한다.

마지막 7연에서 독자는 화자의 발화 태도를 끝이곧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7연은 반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선 1행의 문장은 1연과 동일하다. 그러나 1연이 독자로 하여금 자연 현상인 ‘안개’의 영상을 사상하게 했다면, 7연의 1행은 독자를 사건 발생의 원인과 이를 은폐하려는 ‘안개’를 사상하게 한다. 2행의 ‘그 읍’이 이끄는 지각적 직시의 중심에서 독자는 ‘안개는 명물이다’를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안개’에 대한 묘사가 사건, 은폐, 폐쇄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용시의 첫 문장이 7연의 첫 행에 재등장한다. 이와 같은 시의 통사 구조¹⁶⁾는 의미 변화를 유발한다. 즉 이 시의 첫 문장과 7연의 첫 행은 동일 문장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이해된다. 첫 연의 문장은 ‘샷강’이라는 공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써 안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7연에서 다시 접하게 첫 행의 문장은 앞의 1연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 7

16) 이 글에서 언급하는 통사 구조에 대한 고찰은 피쉬의 ‘정서적 문체론’에 가깝다. 즉, 독자가 해석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체론적 자질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다. ‘정서적 문체론’에 따르면, 시의 문체론적 자질은 독자측면에서 이해와 사회적 교섭을 통해 해석된다. 이와 같은 피쉬의 관점은 인지시학의 한 형태이다.(Peter Stokwell, op. cit., p.75.)

연 첫 행의 ‘안개’는 더 이상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독자는 텍스트적 직시의 중심에서 ‘안개’에 공장 굴뚝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기의 영상을 투사한다. 이에 따라 독자는 ‘셋강’이라는 공간에서 사는 ‘여직공’과 ‘아이들’의 삶에 ‘안개’가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3행의 내용은 ‘안개’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읍의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3연의 ‘습관’과 연결된다. 4행의 내용은 3연의 1, 2행에서 태양을 차단하는 ‘안개’가 “희고 아름다우며”의 원인임을 짐작하도록 이끈다. 또한 독자는 “희고 아름다우며”의 주체가 ‘여공’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장’에서의 노동이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된다.

7연은 독자를 텍스트적 직시로 이동시켜 텍스트 밖에서 이 시를 이해하게 만든다. 7연의 각 행은 앞에서 제시된 시의 각 부분들과 대응하는데, 각각의 대응은 독자를 텍스트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한다. 7연의 1, 2행은 ‘안개’를 특징 짓는 진술로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안개의 軍團’과 ‘안개의 聖域’과 관련된다. ‘軍團’은 ‘안개’의 군집성을 강화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텍스트 밖으로 튀어 나오는 경우 군사독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그 결과 ‘안개가 낀 읍’에 대한 영상은 신군부가 마을에 주둔하고 있는 영상으로 전환된다. 독자는 ‘聖域’에서 ‘비밀’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이를 시의 내용에 주입한다. 이와 같은 ‘聖域’의 이미지는 5연의 내용을 통해서 ‘검탈’과 ‘얼어 죽음’을 감추는 ‘은폐’의 속성으로, 2, 3, 4행을 통해서 ‘격리’와 ‘비밀’의 속성으로 변환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2연의 마지막 행인 “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는 ‘감옥’과 ‘군부의 폭압’을 연상하게 만든다.

7연의 3, 4, 5행은 독자로 하여금 ‘그 읍’의 산업화에 대해 상상하게 한다. ‘주식’과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독자를 텍스트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한다. 그 결과 독자는 ‘그 읍’의 산업화를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확장한 공간 차원에서 이 시를 이해하게 된다. 이때 공간적 직시와 함께 시간적 직시 이동도 병행한다. 이 시는 독자를 기형도 시인이 창작 활동을 했던 시기, 신군부가 통치했던 때, 그리고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1980년대로 이동시킨다.

지금까지 독자 측면에서 기형도의 『안개』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자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시어는 ‘안개’이다.

이 시에서 ‘간혀 있음’, ‘새어 나오는’, ‘흘러 다닌다’, ‘희고 딱딱한 액체’, ‘빨려 들어가고’ 등과 같은 표현은 ‘안개’의 속성에서 연유한다. 또한 이 시에서 감춰진 화자의 목소리로 발화하며, 대상과 인물을 대명사로 지시함으로써 대상을 모호하고 흐릿하게 감추며, 사건이 ‘안개’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시야를 방해하고 사건과 대상을 은폐하는 ‘안개’의 속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안개’ 시어는 빈도수와 시 텍스트에서의 위치에 의해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안개’ 시어는 시의 모든 연에 등장하며 대부분 연의 처음과 마지막 행에서 나타난다. 연의 처음과 마지막 행은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의 중간에 있는 행에 비해서 가독성이 높다. 이 시는 연의 시작 행 또는 종결 행에 ‘안개’ 시어를 위치시킴으로써 이 시어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에서 대체로 연의 첫 행과 마지막 행은 ‘안개’와 관련한 사건의 전제와 결과를 진술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예컨대 2연 1행의 “이 읍에 와 본 사람은”, 3연 1행의 “어떤 날은”, 4연 1행의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과 같이 연의 첫 행은 이후 진행되는 사건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서 있어야 한다……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미친 듯이 흘러 다닌다”, “안개에 잘린다”는 사건의 결론을 진술한다. 이 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연의 처음과 마지막 행은 의미상의 하나의 문장처럼 결합될 수 있다. 2, 3, 4연의 경우처럼 첫 행은 사건의 전제를 제시하는 명사부이고, 연의 마지막 행은 사건과 행동의 양상을 진술하는 서술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5연에서 첫 행의 ‘몇 가지 사건’은 주어가 되고 마지막 행의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는 서술부가 되어 의미상 하나의 문장처럼 인지된다.

마지막 7연은 이 시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 연은 네 개의 명제적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개가 낀다’, ‘안개는 명물이다’, ‘누구나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아이들은 공장으로 간다’의 각 문장 내용은 이 시의 사건을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명제적 문장들이 지시하는 ‘안개’의 고착화와 반복적인 ‘습관’의 의미를 축어적으로 받아 들일수도 있지만, 이러한 의미를 함축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7연은 고발적인 성격을 지닌 의미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안개’의 특성을 인지한 독자는 7연 1, 2, 3행의 문장을 마지막 4, 5행의 문장과 인과적인 의미 차원으로 결합한다. 7연의 문장들을 병렬의 나열인 아닌 인과적인 의미로 결합하는 것은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일이다.

「안개」시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안개’를 자연현상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상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을 행한다. 왜냐하면 독자는 이 시의 스토리에서 ‘안개’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간혀 있음’(2연), ‘홀려 다닌다’(3연), ‘잘린다’(4연) 등과 같은 연의 마지막 행에 있는 진술은 일견 ‘안개’의 속성과 관련한 자연 현상의 내용으로 인지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는 시의 후반부로 갈수록 ‘안개’와 관련한 자연 현상이외의 또 다른 영상을 사상한다. ‘안개의 軍團’과 ‘젖은 銃身’은 ‘안개’의 의미 변화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시의 ‘안개’는 자연 현상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의미가 변환되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안개’의 의인화와도 관련된다.

3. ‘안개’의 의인화 전략과 의미

이 시의 3연은 안개가 낀 아침 출근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4, 6연에서는 안개가 걷힌 낮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아침 출근길과 낮 시간대의 풍경 묘사가 어둡다. 또한 저녁과 밤의 시간에 그 공간에서는 여공이 겁탈당하고, 사람이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즉, ‘안개가 끼는 셋강’에 사는 사람들은 안개에 갇힌 삶을 산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진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은 낮] 은유와 [인생은 하루] 은유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개념 은유는 인간의 삶을 하루의 여정으로 사상한다. 그래서 아침은 유아기, 낮은 성인기, 저녁은 노년기에 대응된다. 독자는 목표 영역이 인생과 근원 영역인 낮 사이에서 얻어지는 대응 관계를 통해 ‘셋강’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한다.

이 시와 개념 은유인 [인간의 삶은 낮] 은유, [인생은 하루] 은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결된다. 하나는 [인간의 삶은 낮] 은유와 [인생은 하루] 은유에서 하루의 시간으로 표현된 삶의 개념이 이 시의 ‘아침’, ‘낮(정오)’, ‘저녁’으로 투사되는 것이다.

이 시에는 아침과 낮 그리고 밤의 시간 이동이 있다. 이 시를 노동의 삶과 연결시킨다면 이 시의 아이들의 삶을 이와 관련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마지막 연의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를 통해서 ‘셋강’

에 사는 아이들의 삶의 여정을 ‘아침-아이’, ‘낮-공장’, ‘저녁-퇴근(죽음)’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시의 시간 추이를 따라가면 ‘아침-아이들, 출근’, ‘낮-여직공, 사내, 공장’, ‘밤-여직공, 취객, 방죽’으로 대응된다. 일상적 개념 체계의 일부인 [인간의 삶은 낮]과 같은 관습적 은유는 이 시가 단순히 아침과 저녁으로 나타나는 안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시라는 것을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인용시에서 ‘안개’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관습적인 자연 현상을 의미하다가 이후 의인화¹⁷⁾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함의하게 된다. 이 시에서 ‘안개’를 의인화한 표현은 “안개의 軍團은 셋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 다니다”, “안개는 셋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 놓는다”이다. 먼저 “안개의 軍團은 셋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의 표현은 ‘軍團’이라는 군대식 표현을 통해 이동하지 않고 무겁게 주둔하고 있는 ‘안개’의 영상을 사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개’의 속성은 ‘軍團’의 언어 개념보다는 이미지의 속성을 부여받는다. 즉 부대 편성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사전적 정의인 ‘軍團’이 아닌, 규모와 중량감의 이미지가 ‘안개’에 투사된다. 그 결과 독자는 ‘안개’의 규모를 짐작하며,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에서는 중량감을 체감하게 된다.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 다니다”의 표현에서는 정신 이상 행동이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영상을 ‘안개’에 투사한다. “미친 듯이 흘러 다니다” 표현은 인간의 경우 행동의 비정상성 혹은 정신 이상이라는 개념과 관계하는데, 이것은 이 시에서 ‘안개’의 속성이나 이미지와 대응된다. 즉 이 표현은 ‘안개’의 빠르고 광범위한 확장성과 더불어 시야를 차단하는 속성의 비정상성을 표출하고 있다.

“안개는 셋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 놓는다”에서는 ‘셋강’ 위로 ‘안개’가 빠르게 퍼지는 모습을 인간이 옷을 벗는 행위로 의인화하고 있다. 인간이 한 겹씩 빠르게 옷을 벗는 행위는 안개가 퍼지는 속도와 확장성으로 연

17) 의인화는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은유이다. 의인화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힘, 사건, 추상 개념 등과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인간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활용한다. 이로 인해 다른 대상을 통하여 인간 자신을 파악한다. 이와 같은 의인화는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존재론적 은유에 속한다.

결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옷을 벗는 행위는 타자를 유혹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안개가 옷을 벗는 행위는 사물에 옷을 입힘과 동시에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확장적 개념을 갖는다. 또한 옷을 벗는 행위로 인해 내보이게 되는 속살은 ‘안개’의 본질을 은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에서는 옷을 벗은 ‘안개’의 본질을 “회고 딱딱한 액체”로 은유한다.

‘안개’에 대한 진술에서 파악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은 [사건은 행동] 은유이다. 사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건의 발생을 그 사건에 관여하는 어떤 필연적인 특성 탓으로 돌리곤 한다. 이것은 사건의 발생과 특성 사이에 있는 유의미한 인과적인 연결을 찾아보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이러한 행동 결과의 원인이 되는 특성을 지닌 대상을 사건을 유발한 행위자로 의인화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셋강’에서 시야를 방해하고, 여직공과 아이들을 빨아들이고, 접탈과 죽음이라는 사건의 원인을 ‘안개’로 보고 있으며, ‘안개’의 의인화를 통해 이 시는 독자에게 ‘안개’를 자연적인 현상으로써의 ‘안개’가 아닌 인위적으로 생성된 ‘안개’로 파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 시는 공간, 사건, 대상 등의 범위와 경계를 결정짓는 역할로써 ‘안개’를 용기(container)로 인지하고 있다. 3연에서 ‘새어 나오는 것’, ‘안개 속’, 4연의 ‘빨려 들어가’와 같은 표현은 ‘안개’를 그 속에 사람과 사건 등을 담고 있는 용기로 본다. 즉, 이 시에서 ‘안개’는 지역, 시야, 사건 등을 담는 용기로 묘사되고 있다. 이 시는 용기 은유(container metaphor)¹⁹⁾를 기반으로 지역(셋강, 긴 방죽, 그 읍), 사람(여직공, 아이들, 사내들, 누구나), 사건(접탈, 얼어 죽음), 시야(간혀 있음)를 하나의 용기인 ‘안개’의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런데 이 시에서 ‘안개’를 용기의 개념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를 통해 ‘안개’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2연과 4연에서 드러나듯이 ‘안개’의 용기 역할은 ‘가두는 것’이고 ‘빨아들이는’ 것이다. 예컨대, 2연의 “안개의 빈 구멍 속”에 드러나듯이 ‘안개’를 하나의 용기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감옥’의 속성으로 ‘안개’를 의미 구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안개’ 속으로 들어간 사람

18) G. Lakoff·M. Turner, 이기우·양병호 역, 앞의 책, 58쪽.

19) 용기 은유(container metaphor)는 세계 내의 물리적 대상에 대한 신체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용기 자체가 안과 밖을 경계 짓는 역할을 담당한다.(양병호, 앞의 책, 47쪽 참조.)

들이 “간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념 은유를 통한 시의 의미 구성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시는 관습적인 개념 은유를 바탕으로 ‘안개’의 의미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개’의 의인화와 관련한 표현은 의미적으로 ‘안개’의 권력적 측면을 구축하며, 이를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그 과정에서 이 시는 개념 은유의 개념적 속성만을 차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구축된 ‘안개’의 속성은 마지막 연에서 ‘공장’으로 인계된다. 독자는 6연에 이르러 ‘안개’와 ‘공장’의 유사성을 파악하게 된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인용 부분에서 여공들의 얼굴이 희고 아이들이 모두 공장으로 가는 상황의 원인은 ‘안개’이다. 이것은 ‘안개’의 속성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인용 부분에서 독자는 공장으로 여직공과 아이들이 들어가는 영상을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간혀’는 영상과 오버랩한다. 그래서 독자는 ‘안개’와 ‘공장’의 유사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 결과 ‘안개’가 지니는 ‘감옥’의 속성은 이 부분에서 ‘공장’의 속성으로 인계된다.

‘안개’와 ‘공장’의 유사성은 각 개념의 속성들이 상호 대응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안개’의 영역에서 ‘셋강’은 ‘공장’에서는 ‘폐수의 고장’으로 대응된다. 그리고 ‘안개’의 ‘여직공, 아이들, 사내들’은 ‘공장’의 영역에서는 ‘직원(노동), 누구나’가 된다. 마지막으로 ‘안개’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갑탈’과 ‘얼어 죽음’은 ‘공장’의 영역에서는 ‘그것, 쓰레기 더미, 개인적인 불행’으로 대응된다. 이와 같이 ‘안개-공장’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독자로서 하여금 ‘안개’가 견뎌낸 후에 보이는 실체가 ‘공장’임을 파악하게 한다. 이 시는 자연 현상인 ‘안개’를 의인화하여 그 개념의 변환을 이루었으며, 이로써 인공적인 ‘안개’를 통해 인간 사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기형도의 시 『안개』를 인지시학 방법론으로 고찰하였다. 『안개』는 ‘죽음’과 ‘소외’로 점철된 기형도의 시세계의 출발을 알리는 시이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시 읽기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직시 이동 이론을 중심으로 독자측면에서 시 읽기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직시 이동에 따른 독자측면에서의 시의 이해를 살펴보았다. 독자는 ‘새강’, ‘읍’, ‘폐수의 고장’과 같은 공간적 직시의 영역과 ‘아침, 저녁, 한밤중’ 등과 같은 시간적 직시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리고 독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화자의 관찰자적 목소리를 듣는 시공간적 직시의 영역에 머문다.

독자는 관계적 직시의 영역에서 등장인물이 ‘안개’, ‘공장’ 등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파악한다. 이 시는 도입부에서 독자를 ‘생각하는’ 지각적 직시로 이동시킨다. 독자는 이 ‘생각하는’ 영역에서 화자의 발화 내용을 따라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곧 ‘안개’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지시어와 서술어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그 결과 독자는 ‘그것’, ‘쓰레기 더미’, ‘누구냐’를 통해 대상과 사건을 사물화, 일반화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그리고 독자는 사건과 장소에 대한 지시어를 ‘안개’의 ‘차단’과 ‘은폐’의 속성으로 파악하게 된다.

‘안개’의 의미가 변환되면서 독자는 텍스트 밖으로 튀어 나오기하여 텍스트적 직시의 영역에서 이 시를 이해하게 된다. 독자는 1980년의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 시에 대응하면서 『안개』의 의미를 사회의 시각에서 이해하게 된다.

3장에서는 개념 은유를 통해 ‘안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시에서 ‘안개’가 나타나는 아침과 저녁의 시간과 ‘안개’의 활동에 대한 표현은 [인간의 삶은 낮] 은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안개’의 의인화는 [사건은 행동이다] 은유와 결합하여 ‘안개’의 권력적 측면의 의미를 구성하며, 이를 통해 이 시의 의미를 인간 사회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안개’에 대한 개념 중 하나는 ‘안개’를 하나의 용기로 보는 것이다. 이 시는 용기 은유에 기반하여 지역, 사람, 사건, 시야를 용기인 ‘안개’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런데 이 시에서 ‘안개’를 용기로 인지하는 태도의 특징은 ‘가두고’, ‘빨아들이는’ ‘안개’의 속성을 표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안개’의 속성은 마지막 연에서 ‘공장’의 속성으로 대응된다. 그 결과 ‘안개’와 ‘공장’이 ‘감옥’의

속성으로 연결된다. 이로써 ‘안개’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서 ‘공장’과 사회가 만들어 낸 폐해의 산물로 변환된다.

이 글에서는 「안개」 시에 나타나는 숨어 있는 화자, 모호한 지시어 사용 등과 같은 문체적 특질이 이 시의 의미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문체적 특질은 「안개」 시뿐만 아니라 기형도의 다른 시에서도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기형도 시 전반으로 확장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는다.

〈참고문헌〉

1. 자료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2. 논저

구지원, 「기형도 시 연구: 보들레르 시와의 비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권혁웅, 「기형도 시의 주체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4, 65-87쪽.

김경복, 「유배된 자의 존재 시학」, 『문학과 비평』, 1991. 3.

김 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남진우, 「숲으로 된 푸른 성벽: 기형도 미완의 매혹」, 『숲으로 된 성벽』, 문학동네, 1999.

박나영, 「'빈 집'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철화, 「집 없는 자의 길 찾기 혹은 죽음: 기형도론」, 『문학과 사회』, 1989. 8.

엄경희, 「상자 속에 채집된 아이러니적 존재-기형도론」, 이화현대시연구회, 『행복한 시인의 사회』, 소명출판, 2004.

오윤정, 「기형도 시에 나타난 죽음과 몸」, 『한국문예비평연구』3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4, 181-204쪽.

이송희, 「인지시학적 시각으로 본 기형도 시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4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4, 115-135쪽.

이유선, 「기형도 시의 공간 이미지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임세진, 「기형도 시에 나타난 소외 이미지 연구」, 『겨레어문학』47집, 겨레어문학회, 2011. 12, 227-257쪽.

장석주, 「기형도 혹은 길 위에서의 중얼거림」, 박해연 외 편, 『정거장에서의 충고』, 문학과지성사, 2009.

- 정재은, 「기형도 시의 물 이미지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효구, 「차가운 죽음의 상상력」, 『현대시학』, 1992. 2.
- 조병춘, 「기형도 시 연구」, 『새국어교육』65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3, 394-409쪽.
- 차대식, 「기형도 시의 지평 연구: 수용적 차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창현, 「한국현대시 존재탐구의 변모양상」, 『어문논집』31집, 중앙어문학회, 2003. 12, 209-234쪽.
- 황효일, 「거리의 시인: 기형도에 대하여」, 『북악논총』18집, 국민대학교교대학원, 2001. 2, 33-46쪽.
- Gerard Steen·Joanna Gavins 편, 양병호·김혜원·신현미·정유미 역,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한국문화사, 2014.
- G. Lakoff ·M. Turner, 이기우·양병호 역,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1996.
- Peter Stokwell, 'Miltonic texture and the feeling of reading', edited by Elena Semino·Jonathan Culpeper, Cognitive Styl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2, pp. 73-94.
- Peter Stokwell,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기형도의 『안개』를 인지시학 방법론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기형도의 시는 ‘죽음’으로 점철되는 비극적 슬픔의 시세계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기형도의 시작 활동의 출발인 시 『안개』는 시인의 비극적 세계관이 응축된 시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인지시학의 직시 이동 이론과 개념 은유를 방법론적 토대로 하여, 시 『안개』의 의미가 도출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형도 시에 대한 연구는 시적 세계관을 ‘죽음’과 관련지으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요절한 시인이라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의 시에 함의된 ‘죽음’ 이미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소외’ 의식에 대한 논의 또한 ‘죽음’과 관련한 비극적 세계관에 이르는 도정으로 볼 수 있다.

기형도 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시에 구현된 사회 현실성에 대한 측면이다. 이 지점에서 기형도 시를 비판하는 측은 시가 1980년대의 사회 현실을 방목하고 구체적 사건이 없는 모호함의 이미지(안개 이미지)로 단순히 시대를 풍경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기형도 시의 사회 반영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당시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 신군부의 통제와 탄압 등 80년대에 나타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인사적 체험과 정서를 통해 ‘죽음’과 ‘소외’ 의식 등으로 의미를 형상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견 상충되어 보이는 양측의 평가는 기형도 시가, ‘사회 비판성’과 ‘서정성’이라는 양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양가적 특성의 접점을 찾아내고 그 접점이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여 기형도 시를 읽어볼 것이다. 즉 기형도 시에서 ‘사회 비판성’과 ‘서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양립하여 시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인지시학 방법론은 기형도 시 읽기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형도의 시세계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를 전복하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어 보겠다는 차원은 아니다. 기형도 시를 ‘죽음’, ‘소외’, ‘환상성’ 등으로 규정한 기존의 논의들도 읽기 과정의 다양한 변주인 것이지, 기형도의 시

세계나 시의 주제 의식을 새롭게 달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시 『안개』에 대하여 인지시학 방법론을 원용해 분석하되,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인지주체를 독자로 설정하여 독자측면에서 시대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 시의 읽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다양한 읽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기형도, 안개, 인지시학, 직시 이동 이론, 개념 은유, 읽기

【Abstracts】

Cognitive Meanings Study on ‘Fog’ of Hyeong-do Ki

Lee Seung-choel

This article seeks to study ‘Fog’ of Hyeong-do Ki based on the cognitive poetics methodology. The poems of Hyeong-do Ki have its central axis on a poetic world of tragedy, which is interspersed with ‘death.’ ‘fog’ occupies a unique position, in which the poetic world of Hyeong-do Ki is aggregated. ‘fog’ is a poem that is excellent to show the attitude of perceiving the era and poetic world of Hyeong-do Ki. This article does not limit understanding Hyeong-do Ki’s poem to inquiring the prior researches. Yet, it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the various perspectives in reading poems. Such factor may allow the cognitive poetic methodology to provide diversity to reading Hyeong-do Ki’s poems.

Of course, this article is not meant to deduct a new result by analyzing Hyeong-do Ki’s poem through the cognitive poetic methodology invoked in the article. The approach of prior researches that have sought to describe the poems of Hyeong-do Ki as ‘death,’ ‘isolation,’ or ‘fantasy’ are only different variation within the process; however, all these approaches can be agreed to have a similar result regarding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the poem or the poetic world of Hyeong-do Ki.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engage in a discussion which is on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researches on ‘fog.’ In addition, it is to suggest a possibility of various reading

approaches by examining whether reading poems may differ depending on personal and periodical situations from readers' perspective.

In Chapter 2, the reading of the poem 'fog' is examined in readers' perspective through the deictic shift theory. Deictic shift in this poem is formed through perceptual, temporal, spatial, relational, and textual approaches; thus, this article will trace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fog' by exploring the inside and outside the texts through deictic shift by readers. Chapter 3 reveals that the expressions of this poem are based on conceptual metaphor and the meaning of 'fog' is constructed through such metaphor. In addition, this article explains that 'fog' and 'Gongjang' have similarity based on attributes, and that this poem expands meaning through such similarity.

Key words: Hyeong-do Ki, fog, cognitive poetics, deictic shift theory(DST), conceptual metaphor, reading

이 논문은 2015년 7월 6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7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8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